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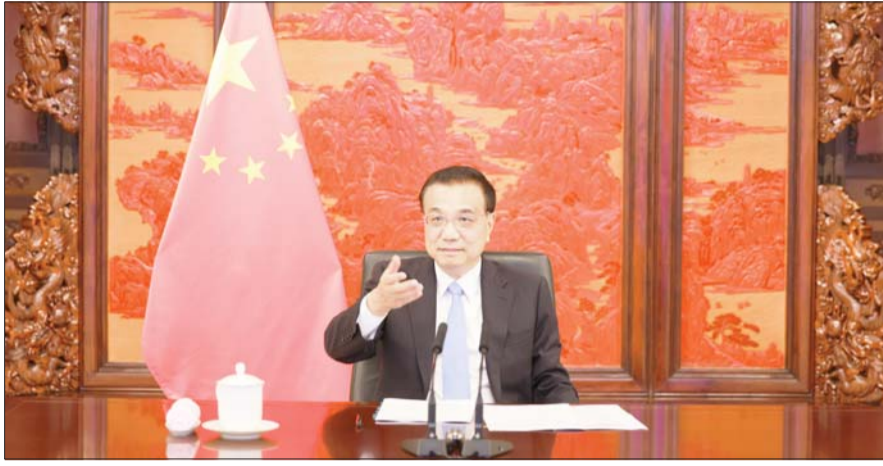
대내외 악재에 치솟는 물가... 中, 스태그플레이션 ‘먹구름’

지난달 생산자물가 10.7% 급등
원자재값 급등에 밥상물가 들쭉
전세계 인플레이션 우려 고조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관전’

중국이 경기침체와 함께 물가상승을 걱정해야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기로에 서게 됐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미 밥상 물가가 들쭉이고 있는데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5% 사수도 힘든 상황이다.

17일 외신 등에 따르면 9월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10.7% 급등했다. 전월 9.5%와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10.5%를 모두 웃돌았다. 1995년 이후 최고치로 2008년 9월 10.1%를 넘어섰다.

생산자물가는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중국 리커창 총리.

/뉴시스

반영되기 때문에 보통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9월에 0.7% 상승하는데 그쳤다. 돼지고기 가격 등이 하락하면서 8월 상승률을 밑돌았지만 점차 PPI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세계의 공장’인 점을 감안하면 전 세계가 인플레이

션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급등한 생산비용으로 중국 제조업은 이미 위축됐다. 중국 경제가 미약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는 이유다.

중국의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6을 기록했다.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기준선 50% 이하로 내려간

것은 작년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5.7을 기록한 이후 19개월 만이다.

PMI는 다시 50선을 상회할 수도 있겠지만 전력난이나 헝다발 유동성 위기 등을 고려하면 중국 경기가 둔화 국면에서 쉽게 빠져 나오긴 힘든 상태다.

핀포인트자산운용 장즈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PPI 상승률이 놀라울 정도”라며 “물가는 오르지만 경제 활동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중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건은 하반기 경제성장률이다. 작년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 중국 경제가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2019년 4분기 5.8%였다.

중국은 18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발표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력난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전망치는 이미 꾸준히 하향 조정됐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는 5%다. 반면 프랑스 은행 나티시스는 3분기 성장률이 4.9%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기준으로는 골드만삭스와 노무라가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7.8%, 7.7%로 내려잡았다. 상반기 GDP 성장률이 분기 평균 13.1%임을 감안하면 골드만삭스와 노무라 전망치는 중국의 하반기 GDP 성장률이 3%선을 밑돌 수도 있다고 보는 수치다.

중국의 경기 둔화는 국내 수출, 제조업에도 부담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국내외 대(對)중국 의존도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절대적인 비중은 여전히 높다.

중국 리커창 총리는 지난 14일 “경제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경제적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中 헝다 사태, 경제영향 제한적... 재발 가능성 상존”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금융 리스크 확산 가능성 낮지만
주택경기 둔화, 투자 악화 불가피
중국경제 구조적 문제 드러나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인 ‘헝다그룹 사태’가 중국경제가 떠안고 있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 중 일부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헝다그룹 사태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근 중국 헝다그룹(부동산개발 2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은 헝다그룹 사태를 그간 부동산 부문에 크게 의존해 온 중국 성장모델의 취약성, 성장 과정에서 누집된 부동산 개발기업의 과잉부채, 정부의 규제



중국 남부 선전에 있는 중국 부동산개발회사 헝다(에버그란데) 그룹 본사.

/뉴시스

강화가 동시에 맞물리며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 수단으로써 인프라·건설 관련 투자를 늘려왔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관련 부문 비중이 지속해서 상승했다.

문제는 부동산 개발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여타 산업 대비 높아 유동성 위기

에 취약하다는 것. 부동산 개발기업들이 호황기 동안 차입을 통해 사업 규모를 크게 확장해오면서다.

실제 부동산 개발기업의 부채비율은 396.5%로 제조업의 108.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헝다그룹은 그중에서도 올 상반기 기준 478.4%에 달하는 부채비율로 특히 높았다.

강도 높은 규제도 영향을 끼쳤다. 중

국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개발기업에 대한 ‘세 개의 레드라인 규제(三條紅線)’를 도입해 부실 부동산기업의 신규 차입을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왔다. 헝다그룹은 그간의 부채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동산 개발기업 대비 레드라인 위반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헝다사태에 대한 시장 견해는 대부분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주요 기관들에 따르면 헝다그룹의 디폴트가 발생하더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헝다그룹의 디폴트 위기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 및 단기적 시장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 내 부동산 관련 부문 비중이 높아 주택경기 둔화, 건설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헝다

그룹 및 관련업체의 보유자산 매각, 투자심리 위축 등이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쳐 소비 회복세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토지사용권 판매수입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재정여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제한적 익스포져, 중국정부의 금융시장 통제력을 감안할 때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채수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이번 사태는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간 중국경제에 누적돼 왔던 구조적 문제, 즉 부채누증 문제가 일부 현실화됐다는 점”이라며 “이번 사태는 중국경제가 떠안고 있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그림자 금융, 기업부채, 생산성 저하 등) 중 일부가 드러난 것일 수 있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영 기자 wdus0248@

‘백신 국산화’, 전략적 컨트롤타워 필요

>> 1면 ‘일상회복, 신약에’서 계속

특히 두 컨소시엄은 지난 달 말 업무 협력을 맺고, K-백신 개발 협업을 약속한 바 있다.

◆치밀한 전략과 아낌없는 투자

정부도 적극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한해에만 치료제·백신 개발 부문에 총 321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국산 백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임상 3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을 위해 2020~2022년 3년간 총 4127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또 2상 중간 결과와 3상 시험 계획(IND) 승인을 받은 백신에 대해서는 개발 완료 전이라도 면역원성, 안전성 등

을 평가해 선구매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백신 자급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백신 원료는 물론 원료 배합 비율, 원료 제조 기술, 백신 개발 기술 등 여러 종류의 특허가 얽혀있는 탓이다. 업계는 백신 국산화를 위해서는 확실한 컨트롤타워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전반을 이끌 수 있는 대기업이 중심이 되겠지만 각 요소에 맞는 기술을 가진 바이오벤처들이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협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백신 제조 기술 등의 특허 역시 기업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허들(장애물)인 만큼 더욱 전략적인 민관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 지원을 통한 안전망 구축도 꼭 필요한 요소다. mRNA의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 벤처, 모더나의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액이 60억달러(약 6조79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모더나 기업 가치가 155조원에 달한다”며 “신약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얼마나 가치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임상 개발비 지원은 물론 투자에 대한 손실 보전, 신속한 선구매 계약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기업들이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전략적 접근과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내년 안에 K-백신을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웨이퍼 생산량 대폭 늘리고 재생 등 ‘노력’

>> 1면 ‘웨이퍼 공급난에’서 계속

2023년에는 아직 웨이퍼가 부족하지 않는데도 서둘러 웨이퍼 줄이기에 나선 이유도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다행히 당장 빗그로스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가 이미 주력 제품인 2세대(10y)와 3세대 10나노(1z) D램 수율을 충분히 높인 데다가, 차세대(1a) D램 양산까지 시작한 덕분. 웨이퍼 재생 등 웨이퍼 사용을 최소화할 여러 기술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웨이퍼 업계도 생산량 늘리기 작전에 돌입했다. 웨이퍼 업계 2위인 일본 섬코가 2조5000억원을 들여 12인치 웨이퍼

생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고, 1위인 신에츠 역시 증설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상하이신성반도체가 2025년까지 웨이퍼 생산 능력을 4배 늘리겠다고 공언하는 등 ‘반도체 굴기’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다.

다만 제조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불량률을 더 줄이기 어렵게 되는데, 새로운 펌에서 만들거나 재생한 새로운 종류의 웨이퍼를 도입하면 생산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웨이퍼 공급난이 장기화되면 결국 메모리도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김재용 기자 juk@